

백제 한성시대 북방 관방(關防) 위치 재고찰

-관미성 위치를 중심으로-

남주성¹⁾

<목차>

- I. 머리말
- II. 백제 북방 관방에 대한 기존 학설
 - 1. 백제의 북방 관방 설치
 - 2. 관미성 위치
- III. 기존 백제 관방 위치 비정의 의문점
- IV. 백제 관방 위치 재고찰
 - 1. 요령반도 천산산맥과 백제 관방
 - 2. 관미성과 대련시 대흑산 산성 관련성
- V. 맺음말

【연구요약】

이 연구는 백제의 북방 관방 위치에 대하여 기존 학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위치를 모색하는 작업이다. 특히 관미성의 위치를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기존 학설이 주장하고 있는 관방과 관미성의 위치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기존 학설은 백제의 관방선이 강원도 이천군에서 개성에 이르는 마식령산맥 통로상에 위치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관미성에 대하여도 예성강 하구 백마산성, 강화도하음산성 교동도 화개산성, 한강 하구 파주 오두산성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왕 대와 무령왕 대에 한수 이북이라고 여겨지는 한산성(漢山城)과 황해도 일대에서 고구려와 전투를 하는 기록이 있어서 기존 학설의 설명과 배치된다.

본고는 요양과 북한 평양을 각각 고구려와 백제의 왕도라는 근래의 새로운 학설에 입각하여, 백제의 북방 관방이 요동반도 천산산맥의 남북 통로상에 있었고, 관미성은 대련항을 보호하는 대흑산 산성(고구려 비사성)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제어】

백제 관방, 관미성, 오두산성, 한산성, 대흑산 산성, 비사성

1) 행정학박사, 전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겸임교수

I. 머리말

고구려는 고국원왕 대에 시도한 요동 진출이 전연의 모용선비에게 가로막히자 대외 진출 전략을 남진으로 전환하였다. 백제 진사왕(辰斯王)은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하고자 386년 북쪽 변경에 관방(關防)을 설치하였다.²⁾ 광개토왕은 즉위 원년(392) 7월에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관방(關防)을 돌파하고 석현성(石峴城) 등 10여 성을 탈취하였고³⁾ 10월에는 백제의 서해 해로를 지키는 요충지인 관미성(關彌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⁴⁾ 이후 광개토왕은 관미성을 발판으로 삼아서 아리수(阿利水)를 건너 백제 왕성을 공격하여 아신왕(阿莘王)의 항복을 받고 58城 700村을 취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⁵⁾ 아신왕(阿莘王)은 393년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북방 요새들을 되찾고자 관미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⁶⁾ 장수왕이 한성을 점령하자 백제는 남쪽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백제 관방 시설의 경유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먼저, 마식령산맥을 따라서 강원도 이천군(利川郡) 부근의 팔곤성에서 시작하여 개성 북쪽의 청목령을 경유한 후 개성 서쪽 여현(礪峴)에 이르게 하였다는 설이다.⁷⁾ 다음은, 청목령을 개성 북방으로 설정하고 팔곤성을 평산 일대로 보아서 서쪽은 해주만에 이르렀다는 설이 있다.⁸⁾ 또한 관미성의 위치에 대하여도 학계에서는 예성강 하구, 강화도나 교동도, 한강과 임진강 하구 합류처(파주 오두산성)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백제의 관방을 멸악산맥 관통로 상으로 비정하거나, 관미성을 한강이나 예성강 하구로 특정한 것은 고구려 수도 평양을 현 북한의 평양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전투가 벌어진 패하(溟河) 또는 패수(溟水)를 대동강 또는 황해도 평산 부근의 예성강으로 비정하여 차례로 대입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성왕 대와 무령왕 대에 한수 이북이라고 여겨지는 한산성(漢山城)과 치양성(雉壤城) 수곡성(水谷城) 등에서 백제가 고구려와 전투를 벌이거나, 무령왕 때에 한강 북쪽[漢北]에 쌍현성(雙峴城)을 쌓게 하는 등 백제가 여전히 한강 이북에서 고구

2)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 제3, 진사왕(辰斯王) 2년(386년)

3)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 제3, 진사왕(辰斯王) 8년(392년) 7월 조

4)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권 제18 「고구려본기」제6, 광개토왕(廣開土王) 원년 10월 조

5) 이정빈 역주, 『광개토왕릉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고구려, 6년 병신

6)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 제3, 아신왕(阿莘王) 2년(393) 8월 조

7) 문안식, 「백제의 평양성 공격로와 마식령산맥 관방체계 구축」, 『한국고대사탐구』22, (2016), 146쪽

8)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2021), 25~26쪽.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173~175쪽

려와 대치한 정황이 기록되고 있어서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근래 삼국시기의 압록강은 현 요하를 가리키고, 고구려의 도읍 평양의 위치가 오늘날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중국 요령성(遼寧省) 요양(遼陽)에 있었다는 연구가 남희현 복기대 등에 의해 발표되었다.⁹⁾ 또한 평양 대동강 무덤떼를 연구한 김영섭은 대동강 무덤떼를 축조한 집단이 백제일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이 북한의 평양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¹⁰⁾

고구려 도읍 평양이 요령성 요양이며, 백제의 도읍 한성이 현 평양지역이라면 백제의 북계(北界) 관방(關防)과 관미성의 위치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본고는 요양과 북한 평양을 각각 고구려와 백제의 왕도라는 설에 입각하여 백제의 북방 관방과 관미성의 위치를 요동반도 일대로 비정하고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대로 설득력을 얻는다면 앞으로 웅진시대 백제의 북계(北界)와 고구려 한강 영유설 논란에 관하여도 기존의 학설을 재검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II. 백제 북방 관방에 대한 기존 학설

1. 백제의 북방 관방 설치

(1) 고구려의 남진로

고구려는 고국원왕 대에 서쪽 요동 방향 진출이 전연(前燕)에 가로막히자¹¹⁾ 백제 방면으로 남진을 시도하였다. 반격에 나선 근초고왕은 고구려 평양성(平壤城)¹²⁾을 공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¹³⁾ 고국원왕의 뒤를 이은 소수림왕은 태학(太

9) 남희현, 「장수왕의 평양성, 그리고 압록수와 압록강의 위치에 대한 시론적 접근」,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인하대고조선연구소 연구총서2, (주류성, 2017), 116쪽

복기대, 「고구려 평양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고증」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인하대고조선연구소 연구총서2, (주류성, 2017), 81~82쪽

10) 김영섭, 「평양 대동강면 무덤떼 축조집단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65-266쪽

11)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18 「고구려본기」제6, 고국원왕(故國原王) 12년(342년) 11월조

12) 평양성(平壤城) : 이때의 평양성 위치에 대해 북한에서는 황해도 재령군의 장수산성 인근이라는 견해(손영종, pp.174~187.), 지금의 평양시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김기섭, pp.156~158.). 4세기 후반경의 평양성은 고구려가 6세기 말엽에 축조한 장안성(長安城; 조선시대의 평양성)과 대성산성 사이에 위치한 청암리토성에 비정하기도 한다.

손영종(1990), ; 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학연문화사, 2000)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4 「백제본기」제2, 근초고왕(近肖古王) 26년(371년) 주석 001번 참조

13)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18 「고구려본기」제6, 고국원왕(故國原王) 41년(371) 겨울 10월조

學) 설치, 울령 반포, 불교 도입 등 국가 운영의 내실을 다진 뒤,¹⁴⁾ 37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하고자 373년 청목령(靑木嶺)에 성을 쌓고, 386년 진사왕은 북쪽 변경에 관방(關防)¹⁵⁾을 설치하였다. 백제 관방은 청목령(靑木嶺)과 팔곤성(八坤城)을 연결하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¹⁶⁾

2-1) 근초고왕 28년(373) 가을 7월에 청목령(靑木嶺)에 성을 쌓았다. 독산성(禿山城)의 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달아났다.¹⁷⁾

2-2) 진사왕 2년(386) 15세 이상의 사람을 징발하여 북쪽 변경에 관방(關防)¹⁸⁾을 설치하였는데, 청목령(靑木嶺)으로부터 북쪽으로는 팔곤성(八坤城)에 닿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¹⁹⁾

2-3) 진사왕(辰斯王) 3년(387) 가을 9월에 말갈(靺鞨)과 관미령(關彌嶺)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²⁰⁾

고구려 수도 평양과 백제의 수도 한성을 각각 현 평양시와 서울지역으로 보는 학계의 학설은 다음과 같다. 즉, 4세기 후반 양국은 예성강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을 장악한 상태에서 평산과 금천 일대에서 대치하였다. 고구려는 신계·금천 쪽에 주진(主鎭)을 설치했으며, 백제는 평산·토산을 잇는 국경선을 전조선으로 활용하였

14)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18 「고구려본기」제6,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372년), 3년(373년)조

15) 백제의 관방시설(關防)에 대해 장성으로 보기도 하나(윤명철, 『고구려 해양사 연구』(사계절, 2003), 125쪽. ; 공석구(2007), 227쪽.), 주요 교통로를 방어하던 시설로 추정한다(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혜안, 2006), 170~171쪽. ; 서영일(2006), 52쪽.) ; 정동민(2021), 25쪽.

16) 방위상으로 본다면 서쪽 종점인 바다는 해주만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일대에는 신원-해주로가 지나가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백제가 멸악산맥을 통과하는 주요 교통로인 서흥-평산로와 신원-해주로를 중심으로 관방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멸악산맥을 넘어 예성강 유역으로 진출하려는 고구려를 저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서영일(2008), 26쪽.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제3, 진사왕(辰斯王) 2년(386년)조

17)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4 「백제본기」제2, 근초고왕(近肖古王) 28년(373) 7월조

秋七月, 築城於靑木嶺. 禿山城主率三百人奔新羅.

18) 백제의 관방시설(關防)에 대해 장성으로 보기도 하나(윤명철, 앞의 책(2003), 125쪽. ; 공석구(2007), 227쪽.), 주요 교통로를 방어하던 시설로 추정한다(문안식(2006), 170~171쪽. ; 서영일(2006), 52쪽.) ; 정동민(2021), 25쪽.

19)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 제3, 진사왕(辰斯王) 2년(386년)

二年, 春, 發國內人年十五歲已上, 設關防, 自靑木嶺, 北距八坤城, 西至於海.

20)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 제3 진사왕(辰斯王) 3년(387) 9월조

秋九月, 與靺鞨戰關彌嶺, 不捷.

관미령(關彌嶺) : 명칭으로 미루어 관미성과 연관되는 고개이다.

다.²¹⁾ 양국은 재령강-예성강의 분수령인 멸악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접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²²⁾ 평양에서 멸악산맥을 지나 서울로 통하는 도로는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 평양-상원-수안-신계-토산-연천-양주-한성으로 연결되는 일명 방원령로(坊垣嶺路)로와, 평양-황주-서흥-평산-개성-장단-적성-양주-한성으로 연결되는 일명 자비령로(慈悲嶺路)로이다.²³⁾

(2) 백제 북방 관방

백제는 이러한 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방을 설치하였는데, 청목령(靑木嶺)에서 북쪽으로 팔곤성(八坤城)에 닿고,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렀다. 관방시설의 경유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북쪽의 팔곤성을 강원도 이천군(利川郡) 부근으로 보고 예성강-임진강 분수령인 마식령산맥을 따라서 개성 북쪽의 청목령을 경유한 후 개성 서쪽 여현(礪峴)에 이르게 하였다는 설이다.²⁴⁾ 청목령은 개성의 송악산²⁵⁾, 개성-금천 경계의 청석동(靑石洞)²⁶⁾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⁷⁾ 이와 다르게, 청목령을 개성 북방 중간 기준으로 설정하고, 팔곤성을 평산 일대로, 서쪽 종점은 해주만으로 비정하기도 한다.²⁸⁾ 즉, 백제는 서흥-평산로와 신원-해주로를 중심으로 관방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예성강 유역으로 진출하려는 고구려를 저지하고 연백평야와 예성강 중하류 유역을 지키고자 하였다.²⁹⁾

위의 두 기동로는 위치만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임진강과 한탄강을 건너 남진하는 과정에서 양주 일대에서 합류되어 한강 유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기동로이다.³⁰⁾ 이러한 학설을 지도에 표시하면 아래 <그림1>와 같이 그려 볼 수 있다.

21) 문안식,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서울지역의 동향」, 『서울학연구』, (2010), 122쪽.

22) 여호규(2012), 172쪽.

23) 문안식(2016), 145쪽. ; 서영일(2008), 9~12쪽. ;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제113호, (2023), 28쪽.

24) 문안식(2016), p.146.

2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상 산천 송악조

26) 안정복, 『東史綱目』 권1, 馬韓 百濟始祖 10년조 ; 정동민(2021), 25쪽.

27) 문안식(2006), 170~171쪽. ; 여호규(2012), 173쪽.

28) 정동민(2021), 25~26쪽. ; 여호규(2012), 173~175쪽. ; 서영일(2008), 11~14쪽.

29) 정동민(2021), .25~26쪽.

30)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으로 -」, 『군사』 83, (2012). 174~175쪽.



<그림1> 고구려 남진로와 백제 관방선(바탕지도: 동국대지도, 국립중앙박물관)

이를 정리하면, 4세기말 고구려 광개토왕의 강력한 남진 정책으로 고구려는 예성강 이남, 임진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된다. 475년 장수왕대에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충청도 지역까지 진출한다. 이후 다시 6세기 중반 백제와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하게 되며, 이 시점부터 고구려와 신라는 한강 이북과 임진강 이남을 완충지대로 하여,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치열한 영역다툼을 벌이게 된다.³¹⁾

그런데 이러한 가설들은 모두 고구려 수도 평양과 백제의 수도 한성이 각각 현 평양과 서울에 위치한 것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관방선은 백제의 한성시기 방어시설이 아니고 백제가 한성(현 평양)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하고 난 뒤 구축

31) 권순진(2012), 180쪽.

한 방어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탄강과 차탄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은대리 성, 임진강 도하지점인 연천군 장남면의 호로고루성, 파주시 적성면의 칠중성 등 많은 성과 보루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새들은 모두 백제 웅진 시대와 신라가 한강을 점령하고 난 뒤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관미성(關彌城) 위치

391년 광개토왕은 즉위하자 곧바로 남쪽의 백제 방면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삼국사기』「백제본기」「고구려본기」와 『광개토왕릉비』에는 광개토왕의 백제 공격과 백제의 대응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1) 진사왕(辰斯王) 8년(392) 가을 7월에 고구려왕 담덕(談德)이 4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석현성(石峴城)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군사를 잘 부린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막지 못하니, 한수(漢水) 북쪽의 여러 부락을 많이 빼앗겼다.³²⁾

2-2) 광개토왕 즉위년(392) 겨울 10월에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 성은 사면이 가파른 절벽이며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다. 왕이 군대를 일곱 길로 나누어 20일을 공격하여 빼앗았다.³³⁾

2-3) 아신왕(阿莘王) 2년(393) 가을 8월에 왕이 진무(眞武)에게 말하기를, “관미성(關彌城)은 우리나라 북쪽 변경의 요충지이다. 지금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과인이 분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다. 경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치욕을 갚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칠 것을 도모하였다. 진무는 몸소 군사보다 앞장 서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석현성(石峴城) 등 다섯 성을 되찾으려고 먼저 관미성을 포위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진무는 군량의 수송로가 이어지지 않아 여의치 않자〔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³⁴⁾

2-4) 아신왕(阿莘王) 3년(394) 가을 7월에 고구려와 수곡성(水谷城)³⁵⁾ 아

32)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제3, 진사왕(辰斯王) 8년(392년) 7월조

33)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18 「고구려본기」제6, 광개토왕(廣開土王) 원년(392년) 10월조

34)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제3, 아신왕(阿莘王) 2년(393년)조

35) 수곡성(水谷城)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황해도 신계현(新溪縣) 고적조에는 “폐지한 협계현(俠溪廢縣)이 현의 남쪽 30리에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예성강 중류의 황해도 신계

래에서 싸워 패하였다³⁶⁾

2-5) 3년(394) 8월에 나라 남쪽에 일곱 개의 성을 쌓아 백제의 침공에 대비하였다.³⁷⁾

2-6) 아신왕(阿莘王) 4년(395) 가을 8월에 왕이 좌장(左將) 진무(眞武)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고구려왕 담덕(談德)이 몸소 군사 7,000명을 이끌고 패수(溟水)가에 진을 치고 막아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해 죽은 자가 8,000명이었다.³⁸⁾

2-7) 아신왕(阿莘王) 4년(395) 겨울 11월에 왕이 패수(溟水) 전투(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하여, 직접 군사 7,000명을 이끌고 한수(漢水)를 건너 청목령(靑木嶺) 아래에 진을 쳤다. 마침 큰 눈을 만나 군사들이 많이 얼어 죽자 군대를 돌려 한산성(漢山城)에 이르러 군사들을 위로하였다.³⁹⁾

2-8) 광개토왕 6년 병신(396)에 왕이 몸소 … 군사를 이끌고 [백]잔국([百]殘國)을 토벌하였다. [우리] 군사가 … 하여 영팔성(寧八城)·구모로성(臼模盧城)·각모로성(各模盧城)·간호리성(幹呂利城)·[]성·각미성(閣彌城)⁴⁰⁾…중략…구천성(仇天城)·[]성([]城)을 공취(攻取)하고, 그 국성(國城)을 … 하였다. [백]잔이 의(義)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도성에서] 나와 싸웠다. 왕이 위엄을 갖추고 크게 화를 내 아리수(阿利水)⁴¹⁾를 건너 군대를 보내 [도]성을 압박하였다. [고구려의 군사가] … 중심을 공격하고, … 나누어 성을 포위하니, [백]잔의 군주는 곤란하고 급박해졌다. 남녀 생구(生口) 1천 명·세포(細布) 1천 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무릎 꿇고 스스로 이제부터 영원히 [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왕은 [백잔의 군주가] 이

(新溪) 다울(多粟)로 비정하고 있다.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321쪽.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18, 「고구려본기」제6, 소수림왕(小獸林王) 5년(375) 7월 주석 참조

36)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제3, 아신왕(阿莘王) 3년(394) 가을 7월조

37)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18 「고구려본기」제6, 광개토왕(廣開土王) 3년(394년) 8월조

38)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제3, 아신왕(阿莘王) 아신왕(阿莘王) 4년(395) 가을 8월조

39)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제3, 아신왕(阿莘王) 4년(395년) 겨울 11월조

40) 각미성(閣彌城)을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광개토왕 원년 10월의 관미성과 동일한 지역으로 비정한다.(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 1989), 171쪽.). 이정빈 역주, 『광개토왕릉비』한국고대금석문, 고구려. 주031번.

41) 현재 학계에서는 아리수(阿利水)를 한강(漢江)으로 비정한다.

이정빈 역주, 『광개토왕릉비』 주037번

전에 미혹에 빠져 [저지른] 허물을 은혜로이 용서하고, 그 후 순종해 온 정성을 받아들였다. 이에 58성 700촌을 얻고 [백]잔주([百]殘主)의 아우와 대신(大臣) 10인을 데리고 군사를 돌려 도성으로 귀환하셨다.⁴²⁾

위 기사를 종합하여 보면, 광개토왕은 391년 즉위하자 그해 7월에 4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였다. 먼저 백제 북방의 석현성(石峴城) 등 10여 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10월에는 관미성(關彌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관미성은 ‘백제의 북쪽 변경에 위치한 요충지로서 바닷가에 있으면서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고 사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된’ 천험의 요새였다. 광개토왕이 직접 대군을 일곱 길로 나누어 20일을 공격하여 간신히 빼앗았을 정도로 함락하기 어려운 험지에 위치하였다.⁴³⁾

광개토왕이 관미성 공격시에 바닷물로 둘러싸인 성을 일곱 길로 나누어 공격한 것으로 보아 수군(水軍)도 동원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⁴⁴⁾ 광개토왕은 백제의 王弟와 大臣 등 남녀 1천 명을 포로로 잡아서 환도(還都)했다. 그렇다고 고구려가 이때 점령한 백제성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영락 6년조에 기재된 백제 58城의 존재는 「광개토왕릉 비문」 수묘인 연호조에 모두 적혀 있기 때문이다.⁴⁵⁾

관미성을 상실한 백제 아신왕은 다음 해인 393년 8월에 장군 진무(眞武)로 하여금 군사 1만을 거느리고 한수 북쪽의 석현성(石峴城) 등 다섯 개 성을 수복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가장 먼저 관미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위치적으로 관미성이 백제 쪽에서 가장 가까웠고 또 관미성을 탈환하여 이를 발판으로 삼아 다른 성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미성을 지키는 고구려군의 방어가 굳건하고 또한 백제 군에 대한 보급품 수송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여 아무런 소득도 없이 철군하였다. 이후에도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반격 작전을 감행하였으나, 394년 가을 7월에 수곡성(水谷城) 아래에서, 395년 가을 8월에는 패수(湍水)가에서 광개토왕에게 패하여 8천의 군사가 전사하는 등 고구려의 군사적 우위가 지속되었다.

현재 학계에서는 관미성이 ‘사면이 가파른 절벽에 축조되었고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하여 서해의 예성강 하구 백마산 고성⁴⁶⁾ 강화도 하음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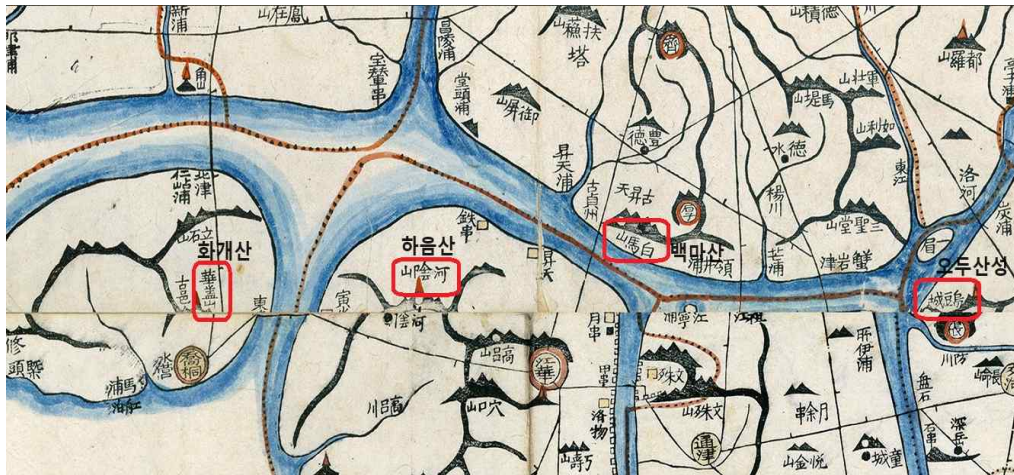
42) 이정빈 역주, 『광개토왕릉비』한국고대금석문, 고구려.

43) 진사왕이 설치한 관방(關防)이 청목령(靑木嶺)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는데, 바닷가에 설치한 마지막 관방이 관미성(關彌城)일 가능성도 있다. 지리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고 관미성의 미(彌)는 그치다, 중지하다의 뜻이 있으며, 미(弭)자와 서로 통하는데 그 의미는 말단(末端)이라는 뜻이다.(동아백년옥편, 두산동아, 573쪽.) 漢典에도 “止也。通作弭”라고 되어서 그치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관미(關彌)는 백제 “관방(關防)의 가장 끝”이라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4) 정동민(2021), 22쪽. ; 윤명철, 앞의 책(2003), 175쪽 ; 신채호(2006), 305~308쪽.

45) 이도학, 「百濟 熊津期 漢江流域支配 問題와 그에 대한 認識」, 『향토서울』제73호, (2009), 6쪽

성⁴⁷⁾, 교동도 화개산성⁴⁸⁾, 한강과 임진강 하구 합류처의 오두산성⁴⁹⁾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고구려는 관미성 점령을 통해 예성강, 임진강, 한강 등이 흘러 들어오는 경기만을 장악함으로써 서울지역 백제 도성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⁵⁰⁾



<그림2>한강 하구 관미성 추정 위치(바탕지도: 대동여지도, 서울대 규장각)

Ⅲ. 기존 백제 관방 위치 비정 의문점

1. 백제 관방 위치 비정 문제점

- 46) 이도학, 앞의 책(2006), 361~362쪽. ; 서영일(2006), 52~53쪽. 개풍군 백마산 고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손영종(1990), 297쪽. ; 문안식(2016), 146쪽. ; 이흥두, 「고구려의 남방 진출과 기마전-특히 강화만 하구 진출을 중심으로」, 『군사』 85 (2012), 12쪽.
- 47) 신체호(2006), 305쪽. ; 하음산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윤명철, 「강화지역의 해양방어체제 연구 - 관미성 위치와 관련하여」, 『사학연구』 58.59 (1999), 251~277쪽.)
- 48) 공석구, 앞의 책(1998), 212~213쪽 ; 박종서, 「고구려 고국원왕 - 광개토대왕대 남진로 검토」 『사학지』 49 (2014), 67~71쪽. 나동욱, 「광개토대왕대 고구려 백제간 전쟁지역 고찰」, 『軍史』 제77호 (2010), 8쪽. ; 교동도 화개산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李丙燾, 앞의 책 (1985), 379쪽.)
- 49) 파주의 오두산성으로 비정한다.(김정호, 『大東地志』卷3, 京畿道 交河 城池) 城池烏頭城。臨津漢水會合處。本百濟關彌城。周二千七十二尺。四面峭絕，唯東連山麓，三面環以海水。距郡西北十四里。
윤일녕(1990), 126~131쪽. ; 김윤우, 「廣開土王의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 - 關彌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백산문화, 1995), 234~240쪽. ; 여호규 (2012), 182~186쪽.
- 50)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진출과 남방 접경」, 『한국고대사탐구』 제 42집, (2022), 158~162쪽.

(1) 한강 유역 고구려 점령 기간 문제

현재의 통설에 따르면, 고구려는 장수왕이 475년 한성을 함락함으로써 한강 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강 수로를 통한 조운이 어렵게 되자 백제는 웅진(熊津)으로 도읍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후 551년 백제와 신라 연합군이 탈환하기까지 76년간 장기간 안정적인 지방통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⁵¹⁾ 그 뒤 553년 신라가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 기반이 된 것이라는 견해이다.⁵²⁾

관미성은 해안방어에 유리한 곳에 위치한 것에 더하여 좋은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 진출에 중요한 전략적 기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관미성의 위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하면서도, 고구려가 관미성을 점령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간 발표된 여러 논문을 보면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지배 기간을 475년 장수왕의 한성 점령부터 들고 있기 때문이다.⁵³⁾ 고구려 광개토왕이 392년 관미성을 함락한 이후 이듬해 백제 아신왕의 수복작전에도 함락되지 않았고, 이후 고구려가 스스로 물러가거나 백제가 되찾은 기록도 없다. 이후 백제가 관미성을 되찾았다면 선왕대의 숙원사업이므로 자랑스럽게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475년 장수왕이 한성을 점령할 때까지 83년간 백제는 한강 하류 고구려군이 점령한 관미성에 수운이 막혀 있는 상태였다. 한강 수운에 크게 의지하는 왕도 한성이 수운이 막힌 상태에서 83년간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통설의 관점에서 보면 관미성은 392년 고구려가 점령한 이후 551년 한강 유역을 신라 백제 연합군이 수복할 때까지 고구려가 무려 159년간 점령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쟁기록과 지리적 위치 불부합

하지만 한성 함락 이후 동성왕(재위 479년-501년)과 무령왕대(재위 501년-523년) 및 성왕(재위 523년-554년) 대에 백제가 한성을 차지하고 한강 이북 황해도 남부 일대를 차지하고 고구려와 일진 일퇴의 공방을 벌이는 기사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

3-1) 동성왕(東城王) 4년(482) 가을 9월에 말갈이 한산성(漢山城)을 습격하

-
- 51) 임기환, 「고구려 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18, (2002), 6쪽.
이도학, 「百濟 熊津期 漢江流域支配 問題와 그에 대한 認識」, 『서울과역사』제73호, (2009), 23쪽.
- 52) 국사편찬위원회, 「고대의 정치와 사회 III - 신라·가야」, 『신편한국사』, (2002), 106쪽.
서영교, 「신라의 漢江유역 점령·유지와 國原」, 『영남학』제83호, (2022), 199-200쪽.
임기환, 위 논문(2002), 1~2쪽.
- 53) 여호규,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99, (2020), 235~236쪽.

여 깨뜨리고 3백여 호를 사로잡아 돌아갔다.⁵⁴⁾

3-2) 동성왕 5년(483) 봄에 왕이 사냥하러 나가 한산성에 이르러 군사와 백성들을 위무하고 열흘 만에 돌아왔다

3-3) 동성왕(東城王) 17년(495년) 가을 8월에 고구려가 와서 치양성(雉壤城)⁵⁵⁾을 포위하자 왕이 사신을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왕이 장군 덕지(德智)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니 고구려 군사가 물러나 돌아갔다.⁵⁶⁾

3-4) 무령왕(武寧王) 원년(501) 겨울 11월에 달솔 우영(優永)을 보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수곡성(水谷城)⁵⁷⁾을 습격하게 하였다.⁵⁸⁾

3-5) 무령왕(武寧王) 3년(503) 가을 9월에 말갈이 마수책(馬首柵)⁵⁹⁾을 불사르고 나아가 고목성(高木城)⁶⁰⁾을 공격하였다. 왕이 군사 5,000명을 보내 이들을 공격하여 물러나게 하였다.

3-6) 무령왕(武寧王) 7년(507) 겨울 10월에 고구려 장수 고로(高老)가 말갈과 더불어 한성을 치려고 꾀하여 횡악(橫岳)⁶¹⁾ 아래로 나아가 주둔하였다.

54)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동성왕(東城王) 4년 9월조

55) 치양성은 황해도 배천(白川)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웅진 천도 이후에 황해도 지역은 이미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 이에 당시 한성시대의 지명을 이치(移置)한 것으로 보는 견해(정구복 외(2012), 748쪽.)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동성왕(東城王) 17년 8월조 주석.

56)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동성왕(東城王) 17년(495년) 8월조

57) 수곡성 : 한성 시기의 수곡성은 현재의 황해도 신계(新溪) 지역에 지정된다. 정구복 외(2012)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무령왕(武寧王) 원년 11월조 주석

58)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무령왕(武寧王) 원년(301) 11월

59) 마수책 : 한성 시기의 마수책은 고구려의 마홀군(馬忽郡, 현재의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지역)으로 지정된다. 반면 웅진 천도 후 한성시기의 지명을 이치(移置)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정구복 외(2012), 758쪽.)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무령왕(武寧王) 3년(503년) 9월조 주석

60) 고목성 : 마수성과 함께 한성시기에 보이는 지명으로 현재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웅진 천도 이후 고목성의 위치는 알 수가 없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무령왕(武寧王) 3년(503년) 9월조 주석.

61) 횡악(橫岳) : 한성 시기의 횡악은 서울의 삼각산에 지정된다(金正浩). 그러나 웅진 천도 이후 횡악의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한성과 횡악이라는 구체적 지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서울의 삼각산으로 보기도 한다(양기석(2008), 180쪽.)

金正浩, 『大東地志』漢城府 山水條.

양기석, 『백제사자료역주집-한국편』I,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무령왕(武寧王) 7년(507년) 주

왕이 군사를 내어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3-7) 무령왕(武寧王) 23년(523)1 봄 2월에 왕이 한성(漢城)으로 행차하여 좌평 인우(因友)와 달솔 사오(沙烏) 등에게 명령하여 한강 북쪽[漢北] 주·군의 백성 중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쌍현성(雙峴城)⁶²⁾을 쌓게 하였다.⁶³⁾

3-8) 성왕(聖王) 원년(523년) 가을 8월에 고구려 군사가 패수(溟水)⁶⁴⁾에 이르자 왕이 좌장 지충(志忠)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싸워 물리치게 하였다.

3-9) 성왕 7년(529) 겨울 10월에 고구려 왕 흥안(興安:안장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변경 혈성(穴城)⁶⁵⁾을 쳐들어와서 빼앗았다. [왕이] 좌평 연모(燕謨)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30,000명을 거느리고 오곡(五穀)⁶⁶⁾ 벌판에서 막아 싸우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였다.⁶⁷⁾

3-10) 성왕 26년(548) 봄 정월에 고구려왕 평성(平成 : 양원왕)이 예(濊)와 함께 모의하여 한수 이북[漢北]의 독산성(獨山城)⁶⁸⁾을 공격하였다. 왕이 사

석 참조

62) 二十三年，春二月，王幸漢城，命佐平因友·達率沙烏等，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已上，築雙峴城。

쌍현성(雙峴城) : 본서 권37 지리4에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지명으로 나온다. 한성시기에는 장단 북쪽에 위치한 망해산의 쌍령 부근으로 추정하나(문안식(2006), pp.194~195.). 이곳이 고구려의 영역이었다는 반론(정구복 외(2012), 761쪽.)도 있어 확실하지 않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무령왕(武寧王) 23년(523년) 주석

63)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 제4, 무령왕(武寧王) 23년(523년) 2월조

64) 패수 : 한성시기의 패수(溟水)는 대체로 현재의 예성강을 지칭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웅진 천도 이후 패수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聖王) 원년(523) 8월조

65) 혈성(穴城) : 현재의 강화군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채희국(1985), 101~102쪽.)

채희국, 『고구려력사연구』(白山資料院, 1985).;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聖王) 7년(529) 주석

66) 오곡(五穀) : 현재의 황해도 서흥군에 비정하는 견해(李丙燾, 1977, 『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406쪽)가 있다. 『삼국사기』권35 지리2 漢州條에 의하면 고구려 때는 오곡군(五穀郡)이었는데, 통일신라 경덕왕이 오관군(五關郡)으로 고쳤다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권41 瑞興都護府 건치연혁조에는 “본래 고구려의 오곡군(五穀郡)”이라 하여 서흥 지역이 확인된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聖王) 7년(529)조

67)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聖王) 7년(529)조

68) 독산성(獨山城) : 본서 권37 지리4에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지명으로 나온다. 독산(獨山)은 고산(孤山)과 같은 뜻의 지명으로서 현재의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비정된다. ‘한북’의 표기에 주목하여 한강 이북인 경기도 포천 성산산성으로 보는 견해(김병남, 「百濟 聖王代の 북방 영역 변화」『韓國史研究』120 (2003), 70쪽.)도 있다. 529년 오곡 전투 이후 백제는 한강 유역 일대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배치된다.

신을 보내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왕이 장군 주진(朱珍)에게 명하여 갑옷 입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나서게 하였다. 주진은 밤낮으로 길을 가서 독산성 아래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들과 한바탕 싸워 크게 깨뜨렸다⁶⁹⁾

한산성(漢山城)은 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로 비정되는 곳이다. 백제의 치양성(雉壤城)은 황해도 배천(白川)으로 비정되는 곳이고, 고구려의 수곡성(水谷城)은 황해도 신계(新溪) 지역으로, 백제 마수책은 포천군 군내면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횡악(橫岳)은 서울 삼각산으로, 쌍현성(雙峴城)은 황해도 장단 부근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패수(溍水)는 예성강으로, 혈성(穴城)은 강화도, 오곡(五谷)은 황해도 서흥으로, 독산성(獨山城) 또한 경기도 포천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한성은 475년 장수왕이 점령한 상태이므로 482년에 말갈이 공격해왔다거나 그 뒤 한수 이북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전투를 하는 상황은 『삼국사기』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392년 광개토왕이 관미성을 점령한 이후 고구려가 한강 하구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또다시 혈성(강화도)을 점령할 필요도 없다. 이와같이 백제가 한강 이북 지역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고 고구려와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르는 것은 475년~551년 사이에 고구려가 한강 유역 전체를 지배했다는 통설적 견해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기록에 대하여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어왔다.⁷⁰⁾ 먼저, 통설적 입장에서 동성왕~성왕대에 한수 이북에서의 고구려와 전투 기록은 믿기 어렵고⁷¹⁾,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는 이유는 백제가 한성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한수 이북의 여러 지명을 한수 이남으로 이치(移置)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⁷²⁾ 또한 무령왕계 왕실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왕도인 한성을 고구려에 빼앗긴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여전히 한성 일대를 확보하고 있던 것처럼 기술한 것이며,⁷³⁾ 웅진 천도 이후 한강 유역 일대의 전쟁 및 한성(漢城) 영유(領有) 기사는 한성시기 진사왕~개로왕대의 기사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백제에서 의도적으로 웅진 시기의 것인 양 분산 기록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견해이다.⁷⁴⁾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聖王) 26년(548) 봄 정월조

69)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聖王) 26년(548) 봄 정월조

70) 이도학(2009), 2~3쪽.

71) 이병도(1959), 428-440쪽.

72)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동북아역사논총』11, (2006), 17~26쪽.

李基白,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9, (1978), 6~7쪽.

73)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 檢討」 『韓國史研究』45, (1984), 25쪽.

74) 강종훈,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42, (2006),

다음으로 기존 지명 이치설 등 통설에 대한 반박으로 동성왕~성왕대에 백제와 고구려와 한수 이북에서의 전투 기록은 동성왕과 무령왕대의 국력 강화로 백제가 한강 하류를 일시적으로 점령한 것으로서 안정적이지 못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⁷⁵⁾

그러나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 웅진 천도 이후의 고구려와 한수 이북에서의 전쟁기록이 지리적 지명 위치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구려 도읍인 평양의 위치를 현 북한의 평양지역으로, 백제의 왕도인 한성(漢城)을 현 서울 강동구 풍납동 일대로 고정해 두고 『삼국사기』의 전쟁 지명을 유추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두 나라의 도읍인 평양과 한성의 위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오로지 기록의 오류로만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2. 전투 기록과 관미성의 지리적 위치 불일치

아신왕(阿莘王) 2년(393) 가을 8월에 왕이 진무(眞武)에게 관미성 탈환을 명령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미성(關彌城)은 우리나라 북쪽 변경의 요충지이다. 지금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과인이 분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다. 경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치욕을 갚아야 할 것이다.” 즉, 관미성은 백제 도성 위치에서 볼 때 북쪽 방향에 있었다. 관미성을 상실한 아신왕이 393년 한수 북쪽의 석현성(石峴城) 등 다섯 개 성을 수복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면서 가장 먼저 관미성을 포위 공격하였는데, 위치적으로 관미성이 백제 쪽에서 가장 가까웠고 또 관미성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미성도 한수 북쪽에 있어야 타당하다. 그런데 현재 학계에서 추정하는 관미성 위치인 파주 오두산성과 강화도 교동도 예성강 하구의 여러 성들은 모두 백제의 왕도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볼 때 북쪽이 아니고 서쪽에 위치한다. 역사 기록과 지리적 방향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아신왕의 명을 받은 장군 진무가 관미성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했으나, “군량의 수송로가 이어지지 않아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백제 왕도 풍납동에서 파주 오두산성까지는 도상으로 60킬로 미터 정도로서 그리 먼 곳이 아니다. 한강 수로는 하류로 내려가는 순로(順路)여서 이보다 더 보급 여건이 좋을 수 없

97쪽.

임기환,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재검토」, 『백제문화』 37, (2007), 15~17쪽.

75)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동성왕(東城王) 4년(482) 9월조, 주석 001번 참조.

朴燦圭, 「百濟 熊津初期 北境問題」, 『史學志』 24, (1991), 61~63쪽.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백산학보』 64집, (백산학회, 2002), 135쪽.

서영교, 「신라의 漢江유역 점령유지와 國原」 『영남학』 제83호, (2022), 202~203쪽.

는 위치이다. 그런데 군량 수송이 어려웠다는 기록도 지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3. 관미성과 백제 연안항로 관련 문제점

백제는 고이왕 때에 이르러 서해 북부 연안항로를 이용하여 중국 요동 지역과 왕래하였다. 백제는 낙랑과 대방 출신을 사절단에 임명하거나 도움을 받아 황해도 장산곶 등에서 서해 중부를 횡단하였다.⁷⁶⁾ 백제가 한성 시대에는 중국의 동진(東晉)·남조(南朝) 송(宋)·북위(北魏)에 보낸 사신 행로가 고구려의 방해로 받지 아니하였다. 즉 백제가 서해와 요동반도 남단을 돌아서 산동반도로 가는 연안항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정황은 백제가 서해 연안항로와 인접한 황해도 평안도 요동반도 남단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3-11) 근초고왕(近肖古王) 27년(372) 봄 정월에 사신을 진(晉)나라로 보내 조공하였다.⁷⁷⁾

3-12) 근초고왕(近肖古王) 28년(373) 봄 2월에 사신을 진(晉)나라로 보내 조공하였다.⁷⁸⁾

3-13) 침류왕(枕流王) 원년(384) 가을 7월에 사신을 진(晉)나라로 보내 조공하였다.⁷⁹⁾

3-14) 비유왕(毗有王) 3년(429) 가을에 사신을 송(宋)나라로 보내 조공하였다.⁸⁰⁾

3-15) 비유왕(毗有王) 14년(440) 겨울 10월에 사신을 송(宋)나라로 보내 조공하였다.⁸¹⁾

3-16) 개로왕(蓋鹵王) 18년(472) 위(魏)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알(朝謁)하고 표문(表文)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⁸²⁾

475년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남조(南朝) 송(宋)에 보내는 사신이 고구려 수군의 방해로 가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 백제가 한성의 상실과 함께 서해 연안

76) 문안식(2015), 14쪽.

77) 진(晉) : 중국의 남조에 속하는 동진(東晉)을 가리킨다. 동진은 317년에 서진(西晉)이 전조(前趙)에 의해 멸망당하자, 왕족인 사마예(司馬睿)가 양자강 남쪽의 건업(建業)으로 내려가 다시 세운 나라로서 420년에 멸망하고 송(宋) 왕조로 교체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백제본기」제2, 근초고왕 27년(372)조 주001번

78)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백제본기」제2, 근초고왕 28년(373)조

79)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백제본기」제2, 침류왕(枕流王) 원년(384)조

80)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백제본기」제3, 비유왕(毗有王) 3년(429)조

81)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백제본기」제3, 비유왕(毗有王) 14년(440)조

82)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백제본기」제3, 개로왕(蓋鹵王) 18년(472)

항로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³⁾ 즉 연안항로와 인접한 황해도 평안도 요동반도 남단 지역을 고구려에 빼앗긴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3> 백제의 대중국 항로

한성을 상실한 백제는 고구려에 의해 대중국 항로가 차단당하자, 위 <그림3>과 같이 기존의 연안항로 대신 고구려 수군의 감시를 피해 충남 태안반도 당진포와 평신진 등에서 덕적도-연평도를 경유하여 서해를 횡단하는 항로를 통해 남조(南朝)와 교류하였다. 아울러서 서남해 연안 도서를 거쳐 흑산도를 경유하여 주산군도(舟山群島)를 거쳐 절강성 부근으로 향하는 서해 사단항로(斜斷航路)를 이용하기도 하였다.⁸⁴⁾ 그러나, 648년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원병을 요청하러 갔다 올 때 고구려와 백제의 연안해로 감시망을 피해 목숨을 건 항해를 한 것으로 보아서, 7세기 중반까지도 동아시아 바닷길은 주로 연안항로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⁸⁵⁾

83) 이도학(2009), 14~15쪽.

84) 문안식(2015), 114쪽.

85) 강봉룡, 「인천해역의 '接境性'과 도서해양 - 해양태동기및융성기 중심으로 - 」, 『도서

3-17) 문주왕(文周王) 2년(476) 3월에 사신을 보내 송(宋)나라에 조공하려 하였으나 고구려가 길을 막아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⁸⁶⁾

3-18) 동성왕(東城王) 6년(484) 가을 7월에 내법좌평 사약사(思若思)를 보내 남제에 가서 조공하려 했으나, 약사가 서해바다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를 만나 가지 못하였다.⁸⁷⁾

3-19) 동성왕(東城王) 8년(486) 3월에 사신을 남제에 보내 조공하였다.⁸⁸⁾

무령왕(武寧王) 12년(512) 여름 4월에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⁸⁹⁾

3-20) 무령왕 21년(521) 겨울 11월에 사신을 양(梁)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이에 앞서 [백제는] 고구려에 격파되어 쇠약해진 지가 여러 해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표문을 올려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려 비로소 [양나라와] 우호를 맺었으며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칭하였다.⁹⁰⁾

3-21) 춘추(春秋)가 (당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다 위에서 고구려(高句麗)의 순라병을 만났다. 김춘추를 따라간 온군해(溫君解)가 높은 사람이 쓰는 모자와 존귀한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배 위쪽에 앉으니, 순라병이 보고 그를 춘추로 여기고 잡아 죽였다.⁹¹⁾

4. 관미성 비정 산성들의 고고학적 조사 결과 의문점

(1) 오두산성

관미성으로 비정되는 오두산성은 파주시 탄현면의 오두산(해발 119m)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석축(추정 문지 주변만 토축) 테뫼식 성곽이다. 성벽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성은 둘레 1,240m, 외성은 둘레 1,228m이다. 북쪽으로 북한 개풍군, 서쪽으로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여 흘러간다. 2007년도에 (재)한백문화재연구원에서 오두산성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고구려로 표식되는 유물과 유구(遺構)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로는 주로 통일신라-고려 시기의 토기, 조선 시기의 백자류 등이 출토되었다.⁹²⁾ 백제가 축조하였다거나 고구려가 점유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명확하

문화』59, (2022). 140~142쪽.

86)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 백제본기』제4, 문주왕(文周王) 2년(476)조 三月, 遣使朝宋, 高句麗塞路, 不達而還.

87)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백제본기」제4, 동성왕(東城王) 6년(484년)조

88)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백제본기」제4, 동성왕(東城王) 8년(486년)조

89)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백제본기」제4, 무령왕(武寧王) 12년(512년)조

90)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6「백제본기」제4, 무령왕(武寧王) 21년(521년)조

91)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5「신라본기」제5, 진덕왕(眞德王) 2년(648)조

92)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2000), 145~151쪽. ;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성곽·봉수편』, (2011), 889~891쪽.

지 않다.⁹³⁾ 조선에서 17세기 황당선(荒唐船)과 수적(水賊)을 방비하기 위하여 경기만 도서 지역에 해방(海防)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오두산성은 제외되었기에,⁹⁴⁾ 왕도인 한성방어와 해상교통 중심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의문이다.

(2) 하음산성, 화개산성

하음산성은 강화도 하점면의 봉천산(해발 291m)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석축 테뫼식 성곽으로 전체 둘레는 290m이다. 동·서·북 세 면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남면이 비교적 완만하며, 정상에서 동쪽으로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과, 북쪽으로 예성강 하구를 볼 수 있다. 유물로서 고려 이전 시기의 암기와편과 니질 토기, 분청사기가 발굴되었다.⁹⁵⁾ 하음산성은 전체 둘레가 불과 290m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광개토왕이 수만 군사로 20여일 공격하여 겨우 함락시킨 관미성의 위상과 걸맞지 않다. 그리고 강화도는 한강으로 진입하는 해로를 통제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육지와 불과 700여m 떨어져 있음에 유속이 빠른 수로로 격리되어 있는 위치이다.⁹⁶⁾ 즉, 백제가 임진강 일대의 성을 되찾아 오는데 있어서 반드시 탈환할 필요악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하음산성은 면석의 형태, 토기 형태로 보아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 기간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추정한다.⁹⁷⁾

화개산성은 교동도 화개산(해발 259.5m)에 있는 석축 포곡식 산성이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내성 1,013m, 외성 1,155m, 둘레 2,168m이다. 성의 윗부분은 천연 절벽을 성벽처럼 이용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주변 사방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유물로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출토되었다.⁹⁸⁾ 교동도 또한 강화도와 같이 수로로 육지와 격리되어 있는 형세이다. 더욱이 적국의 배가 강화해협을 통하여 한 한강으로 진입을 시도할 때에 이를 통제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다.⁹⁹⁾

93) 백제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편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박영재(2008), 496~497쪽.), 보다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요구된다. 2022년 발굴조사 시에 통일신라 때의 유구 유물만 확인되었다(「파주시 보도자료(2022.10.17.)」).

정동민(2022), 162쪽.

김호준, 「파주 오두산성에 대한 백제 관미성설 비판」, 『한국성곽학보』 19 (한국성곽학회, 2011)

94) 강화도를 보장처(保障處)로 인식하고 교동도에 삼도수군통제영 설치(1633년), 인근 영종도(1653년), 주문도(1712년), 장봉도(1717년), 대부도(1871년) 등에 수군진을 설치
임학성, 「조선 후기 京畿 島嶼지역의 水軍鎭 설치와 주민 생활 양태 - 水軍防禦營이 설치된 永宗島의 戶籍 자료 분석 사례 - 」 『역사민속학』57, (2019), 33~35쪽.

95) 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108~118쪽.

96) 강화군·육군박물관(2000), p.13.

97) 윤성호, 「朝鮮城址實測圖를 활용한 삼국시대 성곽 연구」, 『한국사학보』 83, (2021), 154~156쪽.

98) 강화군·육군박물관, (2000), 162~171쪽.

99) 정동민(2022), 162쪽.

(3) 개풍 백마산(白馬山) 고성

『여도비지(輿圖備志)』와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의하면, 개성부의 백마산 고성은 개성부에서 남쪽 40리 승천포(昇天浦) 가에 있고, 고려 고종 39년(1252)에 쌓았으며, 둘레가 10리이고 우물이 73곳이 있다.¹⁰⁰⁾ 백마산 고성은 쌓은 이력이 분명하게 고려 시대 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백제의 관미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원삼국시대의 김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성백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 학운리, 구래리, 양촌, 양곡, 운양동 유적에서 원삼국 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분묘 및 주거지가 다수 발굴되면서 한성백제와는 구별되는 마한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어서,¹⁰¹⁾ 인근의 산성들 또한 한성 백제와 관련성이 의심된다.

IV. 백제 북방 관방 위치 재고찰

1. 요령반도 천산산맥과 백제 관방

북기대 남익현 등은 삼국 시기 압록강(鴨綠江)과 고구려 평양의 위치에 관한 연구에서 고구려 수도 평양은 현 요령성 요양시(遼陽市) 일대였고, 삼국 시기 압록강은 현 요하(遼河)를 가리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¹⁰²⁾ 다음으로 대동강 무덤떼를 연구한 김영섭은 무덤의 축조연대와 조성방식 출토유물을 분석하고, 이를 집안 일대의 고구려 무덤 및 공주 일대의 백제 무덤과 비교 검토한 결과, 대동강 무덤떼를 축조한 집단이 백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이 현 북한의 평양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¹⁰³⁾ 대동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황주 토성리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다량의 백제계 토기는 4세기 중엽에서 후반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황주에서 백제 토기가 출토된 것은 어떤 형태이든 백제의 영향력이 황주 일대에 미치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된다.¹⁰⁴⁾

100) 『輿圖備志』卷四, 京畿道 開城府 武備 城池
白馬山古城。高麗高宗時, 土築。周十里許。有遺址。

『大東地志』卷二 京畿道 開城府 城池

昇天古城。一云白馬山城。南四十里。昇天浦邊。高麗高宗三十九年築。周十里。井七十三。

10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김포 학운리 유적』,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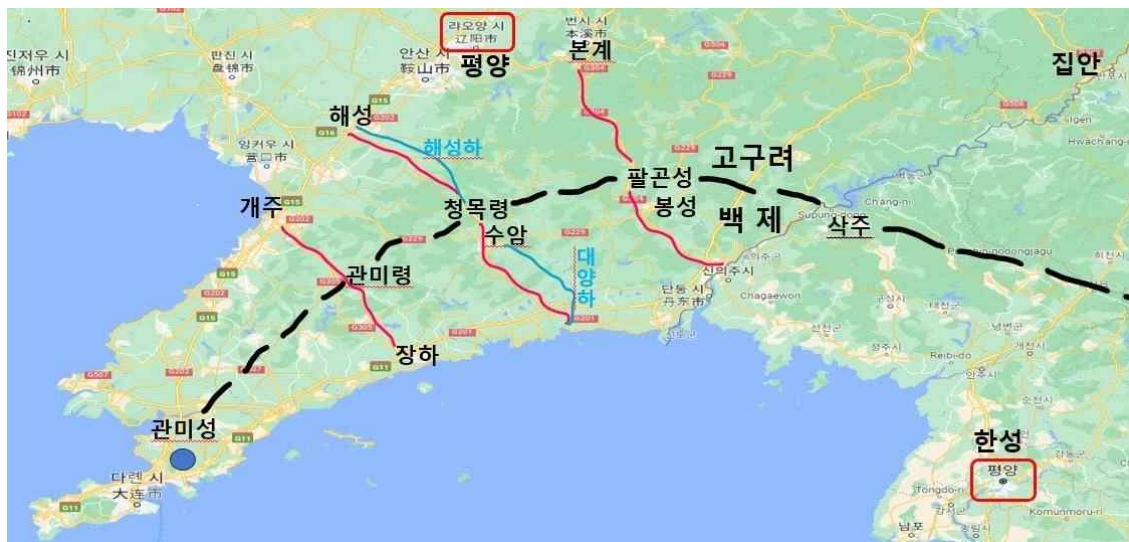
(재)국토문화재연구원, 『김포 덕포진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2017), 4쪽.

102) 남익현(2017), 115~118쪽 ; 북기대(2017), 81~82쪽.

103) 김영섭(2021), 265~266쪽.

104) 서영일(2008), 8쪽.

고구려 왕도 평양이 요령성 요양이고 백제의 왕도 한성이 현 평양이라는 설을 따르면, 평양과 패수는 가까이 있었으므로, 패수 또한 요양과 가까이 있는 강이어야 한다. 『흙정만주원류고』에는 요령성 해성(海城) 서남쪽의 어니하(淤泥河)를 패수(湍水)로도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⁰⁵⁾ 어니하는 곧 오늘날 해주(海州)를 통과하는 해성하(海城河)이다. 패수인 해성하의 남쪽에서 고구려 백제 양국의 경계를 이룬만한 지형은 요양과 단동 사이에서 요동반도를 동북에서 서남 방향으로 기다랗게 뻗어서 요동 지역의 중추를 이루는 천산산맥(千山山脈)이다. 천산산맥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은 일찍부터 천산산맥을 가로지르는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그림4> 백제 관방선과 관미성(바탕지도 : 구글지도)

위 <그림4>와 같이 동북쪽에서 태자하(太子河)~초하(草河)·애하(鬲河) 연안을 따라 본계(本溪)~봉성로(鳳城路), 해성하(海城河)~대양하(大洋河) 연안을 따라 해성(海城)~수암로(岫岩路), 대청하(大清河)~벽류하(碧流河) 연안을 따라 개주(蓋州)~장하로(庄河路) 등이 발달하였다.¹⁰⁶⁾ 백제의 관방은 천산산맥의 주요 관통로 상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위 세 개 통로에는 고구려성이라고 알려진 수많은 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본계-봉성 교통로가 지나는 초하-애하 유역권에는 봉황산성 운반산성 등 29기, 해주-수암 교통로가 지나는 초자하-대양하 유역권에는 낭낭성산성 송수구산성 등 32기, 개주-장하 교통로가 지나는 벽류하 유역권에는 적산산성 성산산성 등 17기가 밀집되어 있다.¹⁰⁷⁾

105) 남주성 역주, 『흙정만주원류고』상권, (글모아, 2010), 394쪽.

106) 여호규, 『高句麗 城』Ⅱ, 국방군사연구소, (1999), 66쪽.

107) 李慶美, 「鴨綠江~遼河 유역 고구려 성곽과 지방통치 연구」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

청목령(靑木嶺)은 해성(海城)~수암로(岫岩路)로에 있는 수암만족자치현(岫岩滿族自治縣) 북쪽 산령으로, 팔곤성(八坤城)은 본계(本溪)~봉성로(鳳城路)에 있는 봉성시(鳳城市) 부근으로 비정해 본다. 그렇다면 백제와 고구려는 대략 요동반도 남쪽인 대련시(大連市)-수암만족자치현(岫岩滿族自治縣)-봉성시(鳳城市)-평북 삭주(朔州)를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온조왕 10년(B.C. 9)에 청목산(靑木山)과 곤미천(昆彌川)에서 말갈과 싸우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청목산은 진사왕이 설치한 관방의 청목령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4-1)〔10년(B.C. 9)〕 겨울 10월에 말갈이 북쪽 경계를 노략질하였다. 왕이 군사 200명을 보내 곤미천(昆彌川)¹⁰⁸⁾가에서 막아 싸우게 하였다. 우리 군사가 거듭 패배하여 청목산(靑木山)¹⁰⁹⁾에 의지해서 스스로를 지켰다. 왕이 친히 정예 기병 100명을 이끌고 봉현(烽峴)으로 나가서 구원하니 적들이 보고서 곧 물러갔다.¹¹⁰⁾

청목산과 청목령을 수암만족자치현 북쪽 산령으로 비정해 보면, 곤미천(昆彌川)은 대양하(大洋河)로 비정해 볼 수 있다.

2. 관미성과 대련시 대흑산 산성 관련성

관미성(關彌城)은 386년 진사왕대에 설치한 북쪽 변경의 관방(關防)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청목령에서 시작한 관방의 연결선이 바다에 이르는 곳에

교 대학원, (2017), 117~127쪽.

108) 곤미천(昆彌川) :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예성강으로 비정하는 견해(李丙燾, 355쪽)와 임진강 상류로 보는 견해(酒井改藏, 1970)가 있다.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朝鮮學報』 54, (1970), 朝鮮學會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乙酉文化社, 1977)

국사편찬위원회역주, 『삼국사기』권 제23 「백제본기」제1, 시조 온조왕(溫祚王) 10년 주석 001번

109) 청목산(靑木山)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개성부 산천 송악조에서는 개성시 송악산으로 보았다. 조선시대의 안정복은 『동사강목(東史綱目)』 마한 백제 시조 10년 조에서 개성과 금천의 경계에 위치한 청석동(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천마산)으로 추정하였고, 영평 일대로 보는 견해(李丙燾(1977), 355쪽.)도 있다. 『삼국사기』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28년(373), 권25 「백제본기」3 진사왕 2년(386)조와 개로왕 15년(469)조에는 ‘청목령’에 성, 관방, 목책 등을 설치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청목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3 「백제본기」제1, 시조 온조왕(溫祚王) 10년 주석 002번

110)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권 제23 「백제본기」제1, 시조 온조왕(溫祚王) 10년

관미성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¹¹¹⁾ 또한 관미령에서 말갈과 전투를 벌인 기록으로 보아서 관미령과 관미성은 인근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미성은 섬이 아닌 바다와 만나는 육지의 끝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천산산맥이 요동반도 서남단 바다와 만나는 곳은 요령성(遼寧省) 대련시(大連市)이다. 요동반도에서 중국과 통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는 대련항(大連港)이다. 또한 이 대련항을 지키는 요새는 금주구(金州區) 대흑산(大黑山)에 있는 산성이다. 곧 고구려의 비사성(卑沙城)이 곧 당시의 전황과 지리적 지형에 비추어 보아서 백제의 관미성이었을 가능성이 큰 곳이다. 관미령(關彌嶺)은 관미성으로 추정되는 대흑산과 가까운 개주(蓋州)~장하로(庄河路)상의 벽류하 상류 산령으로 비정해 본다.

현재 대흑산(大黑山) 산성이라 불리는 비사성(卑奢城)¹¹²⁾은 요령성(遼寧省) 대련시(大連市) 금주구(金州區) 동쪽 우의향(友誼鄉) 팔리촌(八里村) 인근의 대흑산(大黑山)에 자리잡고 있다. 현지에서는 대흑산산성 혹은 대화상산성(大和尚山城)으로 부르는데, 성이 소재한 산 이름을 따서 붙인 것으로 고구려 당시의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대련시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평균 고도 400m, 가장 높은 봉우리는 663m가 되고 북쪽은 백두산 천산(千山)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황해(黃海) 발해(渤海)에 다다른다.¹¹³⁾ 비사성(卑沙城)의 성벽은 석축으로 높이 3~5m, 너비 1.5~2m로 일정하지 않으며 능선을 따라 쌓았는데 성의 둘레는 5km이다. 성안에는 고구려 때의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다.¹¹⁴⁾ 능선이 높고 경사가 급해 오르기 어려워 비사성(卑沙城)을 묘사한 『자치통감(資治通鑑)』¹¹⁵⁾과 『삼국사기』의 “4면이 깎아지른 듯 험준하다(四面懸絶)는 표현이 대략 일치하고 있다.

비사성(卑沙城)이 있는 대련지구는 요동반도 남쪽 끝에 자리잡고 있고 동·서·남 3면이 황해·발해와 맞닿아 있으며 북쪽과 동북쪽은 대륙과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해상과 육상 교통의 뼈대가 된 중요한 군사기지였다.¹¹⁶⁾ 비사성에서는 발해

111) 관미성(關彌城)의 미(彌)는 ‘그치다, 중지하다’의 뜻이 있으며, 미(弭)자와 서로 통하는데 그 의미는 말단(末端)이라는 뜻이다.(『동아백년옥편』, 두산동아, 573쪽)

112) 『辽东志』 古迹

大黑山城 【金州城东十五里山顶有古城在凤凰山之左方约二里有二井四面悬绝惟南一门可上不知何代垒砌唐张亮帅舟师渡海攻沙卑城获男妇人千口意即此】

113) 우성민, 「『中國歷史地圖集』에 표기된 高句麗 卑沙城에 대한 檢討」, 『중국사연구』106, (2017), 157~158쪽.

114) 孫德連, 서길수 옮김, 「비사성(卑沙城)」, 『고구려발해 연구』9, (2000), 407~408쪽.

115) 『資治通鑑』 卷第一百九十七

十九年 四月戊戌朔,癸亥李世勣等拔蓋牟城獲二萬餘口糧十餘萬石張亮帥舟師自東萊渡海襲卑沙城其城四面懸絕惟西門可上程名振引兵夜至副摠管王大度先登五月己巳拔之口男女八千口分遣摠管丘孝忠等曜兵於鴨綠水

116) 許明鋼, 서길수 옮김, 「대련지구(大連地區)에 있는 4개의 고구려 산성에 대한 소고」, 『고구려발해 연구』9, (2000), 395-405쪽.

만(渤海灣)과 황해(黃海) 방면 모두를 굽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험준한 지세로도 둘러싸여 있어, 요동반도 연안로를 이용한 해상교통을 장악하는 데 최적의 요해처였다. 『삼국사기』에도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 침공시 산동성에 출발한 수군이 가장 먼저 비사성을 공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2) 영양왕 25년(614) 가을 7월에 거가가 회원진(懷遠鎭)에 머물렀다. 이때 천하가 이미 어지러워 징발된 병사 대부분이 날짜를 어기고 이르지 못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피폐하였다. 내호아(來護兒)가 비사성(卑奢城)에 이르자 우리 군사가 맞아 싸웠는데, [내]호아가 이를 쳐서 이기고 평양을 향하고자 하였다. 왕이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하고 곡사정(斛斯政)을 보냄에 따라, 황제가 크게 기뻐하면서 부절을 지닌 사신을 보내 [내]호아를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¹¹⁷⁾

4-3) 보장왕 4년(645) 4월에 장량(張亮)이 수군을 거느리고 동래(東萊)에서 바다를 건너 비사성(卑沙城)¹¹⁸⁾을 습격하였다. [비사]성은 4면이 깎아지른 듯 험준하였고, 단지 서문(西門)으로만 오를 수 있었다. 정명진(程名振)이 군사를 이끌고 밤에 도착하니, 부총관 왕대도(王大度)가 먼저 [비사성]에 올라갔다. 5월에 [비사]성이 함락되어 남녀 8,000명을 빼앗겼다.¹¹⁹⁾

비사성이 있는 대흑산 정상에서 보면 서해와 발해만 발해가 삼면에서 둘러싸고 있는 형상(三面環海)¹²⁰⁾은 『삼국사기』 관미성의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海水環繞)”는 표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는 표현을 좁게 해석하여 성벽 바로 아래까지 해수가 닿거나, 섬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서 관미성의 위치를 상정하였다. 대흑산의 비사성에서 구글지도상 동쪽 서해까지 11km, 남

117)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제20 「고구려본기」제8, 영양왕(嬰陽王) 25년 7월조 秋七月，車駕次懷遠鎭。時天下已亂，所徵兵多失期不至，吾國亦困弊來護兒至卑奢城，我兵逆戰，護兒擊克之，將趣平壤。王懼，遣使乞降，因送斛斯政，帝大悅，遣使持節，召護兒還。

118) 비사성(卑沙城) : 현재 중국의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 대흑산산성(大黑山山城)으로 비정된다(여호규 외,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Ⅶ 요동반도-태자하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2020), 159쪽.).

119) 張亮帥舟師，自東萊度海，襲卑沙城。城四面懸絕，惟西門可上，程名振引兵夜至，副總管王大度先登。五月，城陷，男女八千口沒焉。
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삼국사기』 권 제21, 「고구려본기」 제9, 보장왕(寶藏王) 4년 4월, 5월조

120) 중국의 대련시를 소개하는 글들에는 삼면환해(三面環海)의 도시라는 표현이 많다. 三面環海的城市；我国三面環海的城市是辽宁省的大连市。位于辽东半岛的顶端。三东西南三面临海，东边是黄海，南边是渤海湾西边是渤海。
(<https://www.kxting.com/article/20221119/1460439.html>)

쪽 항해까지 7km, 서쪽 발해만까지 9km 정도이다. 서해는 바다빨과 강의 퇴적물로 인하여 충적토의 형성이 빨리 진행되는 곳이다. 대련반도 또한 요하와 인근 하천의 퇴적물 및 서해와 발해의 퇴적물, 그리고 지속적인 매립사업¹²¹⁾으로 해안의 육지화가 진행된 곳이 많다. 1,300여년 전의 삼국시대의 해안선은 지금보다 비사성과 더 가까웠을 것이다. 645년 당군이 고구려 공격시 장량(張亮)이 이끈 수군도 4월에 공격하여 5월에 함락하였다. 비사성이 함락되었을 때 8,000여 명의 고구려인이 포로가 된 것으로 보아서 유사시 성을 지키는 군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초 금나라 왕적(王寂)이 쓴 『압강행부지(鴨江行部志)』에도 “요동반도 남단 화성현(化城縣)은 요나라의 소주관(蘇州關)으로, 남쪽에서 오는 배는 이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는 물에 오를 수 없으며,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군량을 실은 전함 또한 이곳으로 들어왔다. 화성현 철산(鐵山)에는 갑사(甲士) 7천여 명이 항시 해로를 방비하며, 매일 저녁 평안하다는 불빛 신호로 보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²⁾ 광개토왕의 수만 군사가 20여일 공격하여 겨우 함락하고, 아신왕의 1만 백제군사가 성을 함락하지 못하였으며, 공격하는 군사가 방어하는 군사보다 많아야 한다는 군사전략과 비교해 볼 때 관미성 전황과 부합하는 규모이다.

V. 맺음말

475년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점령한 이후 551년 신라와 백제 연합군이 탈환할 때까지 76년간 한강 유역 일대는 고구려가 지배했다는 것이 현 학계의 통설이다. 그런데 관미성은 광개토왕이 392년 점령한 이후 백제가 되찾은 기록이 없다. 특히 관미성은 백제의 북방 주요 방어거점이며, 동시에 백제의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요새였다. 고구려는 관미성을 획득함으로써 백제의 해상교통로를 봉쇄하고, 백제 도성인 한성을 공략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 관미성의 위치에 대하여 ‘사면이 가파른 절벽이고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하여, 그간 학계에서는 예성강 하구, 강화도나 교동도, 한강과 임진강 하구 합류처에 있는 파주 오두산성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관미성의 위치가 한강이나 예성강 하구로 특정된 것은 고구려와 백제의 왕성을 각각 현 평양과 서울지역으로 확

121) 雪鵲等, 「1975~2015年大连市海岸线变迁和围填海变化」, 『海洋环境科学』36.1, (2017), 7쪽.

122) 王寂 著·남주성 역, 「압강행부지(鴨江行部志)」, 『13세기 만주고찰을 위하여』인하대학교조선연구소 연구총서 6, (우리영토, 2020), 240쪽.

정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를 황해도 멸악산맥과 예성강 일대로 보아서 비정한 때문이다. 그런데, 동성왕 무령왕 성왕대에 한수 이북 지역인 한산성(漢山城)과 치양성(雉壤城) 수곡성(水谷城) 패수(溟水) 등에서 백제가 고구려와 전투를 벌이거나, 한강 북쪽[漢北]에 쌍현성(雙峴城)을 쌓는 기록으로 보아서 백제가 여전히 한강 이북에서 고구려와 대치한 정황이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475년부터 551년 사이에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지배했다는 통설에 의문을 갖게 한다.

관미성은 백제의 북쪽에 있었는데, 학계에서 추정하는 한강 하류와 강화도 등은 모두 백제 한성의 서쪽이고, 왕도에서 지나치게 가깝다. 또한 그 성들의 규모도 크지 않아서 사서의 기록된 관미성의 위치 규모와 부합되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복기대 남익현 등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중국 요령성(遼寧省) 요양(遼陽)에 있었고, 삼국시기의 압록강은 현 요하를 가리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김영섭은 평양 대동강 무덤떼를 축조한 집단이 백제일 가능성이 크고,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이 평양지역일 것이라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최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미성의 위치를 탐색해 보았다.

고구려와 백제는 요동반도를 따라 동북에서 남서 방향으로 비스듬히 뻗어있는 천산산맥(千山山脈)을 경계로 하고 있었으며, 백제는 천산산맥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통로인 본계-봉성, 해주-수암, 개주-장하 통로에 관방(關防)을 설치하였다. 관미성은 백제의 관방이 설치된 천산산맥이 요동반도 끝 바다와 만나는 대련시 대흑산 산성 곧 옛 고구려 비사성(卑奢城)일 가능성이 크다. 비사성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발해를 건너 요동반도로 들어갈 때 처음 기착지가 되는 대련항과 요동반도를 지키는 요새로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지형적 조건과 백제가 해양과 중국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성 시대 백제가 해로를 통해 중국과 교통할 때에 고구려 수군의 방해를 받지 않았던 것은 서해 북쪽과 요동반도 남단을 거쳐서 산둥반도에 이르는 연안항로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미성과 평양에 있던 한성을 상실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연안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당진 등지에서 서해를 횡단하는 위험한 항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475년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평양)을 상실한 백제가 남쪽으로 이동한 다음 동성왕대와 무령왕대에 한성을 탈취하기 위하여 한강 이북 임진강 일대에서 고구려와 싸우거나 성왕대에 한강 이북에 쌍현성을 쌓았다는 『삼국사기』의 기록도 모순이 없게 된다.

<참고문헌>

【사료】

『遼東志』, 『大東地志』, 『東史綱目』, 『輿圖備志』, 『資治通鑑』, 『광개토왕릉비문』, 『三國史記』, 『日本書紀』, 『東國輿地志』, 『鴨江行部志』

【단행본】

- 공석구,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1998.
-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2000.
- 국사편찬위원회역주, 『삼국사기』
- 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 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 남주성역주, 『흙정만주원류고』 글모아, 2010.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2006.
- 서영일 외, 『파주 오두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한백문화재연구원 : 파주시, 2008.
- 손영종,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 손영종, 『조선단대사 -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 王寂 저·남주성역, 「압강행부지(鴨江行部志)」, 『13세기 만주고찰을 위하여』인하대학교조선연구소 연구총서 6, 우리영토, 2020.
- 신재호 원저 박기봉 옮김,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2006.
- 양기석, 『백제사자료역주집-한국편』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 여호규, 『高句麗 城』Ⅱ, 국방군사연구소, 1999.
- 여호규 외,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Ⅶ 요동반도-태자하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2020.
- 윤명철, 『고구려 해양사 연구』 사계절, 2003.
- _____,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2.
- 이도학,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6.
-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 _____, 『韓國史(古代篇)』 진단학회, 1959.
- _____,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 이형구, 『한성백제의 왕궁은 어디에 있었나』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14.
- (재)국토문화재연구원, 『김포 덕포진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2017.
-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3주석편(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채희국, 『고구려력사연구』 白山資料院, 1985.
-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성곽·봉수편』, 2011.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김포 학운리 유적』, 2009.

【학술지 및 논문】

- 강봉룡, 「인천해역의 '接境性'과 도서해양 - 해양태동기 및 융성기 중심으로 -」, 『도서문화』59, 2022.
- 강종훈, 「『삼국사기』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研究』42, 2006.
- 공석구,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신라」,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07.
- 국사편찬위원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 - 신라·가야」, 『신편한국사』, 2002.
-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으로 -」, 『군사』, 83, 2012.
-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백산학보』64집, 백산학회, 2002.
- _____, 「백제 무령왕 때의 대내외적 상황과 영역의 변화」, 『한국사상과 문화』37, 2007.
- 김수태, 「백제 성왕대의 변경 :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44,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6.
- 김영관, 「백제의 웅진천도 배경과 한성경영」, 『忠北史學』11·12집, 충북대학교, 2000.
- 김영섭, 「평양 대동강면 무덤떼 축조집단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김영심, 「웅진·사비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문화사, 2003.
- 김윤우, 「廣開土王의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 - 關彌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문화, 1995.
- 김주형, 「고구려 후기 요동지역 고구려성의 위계와 방어체계」,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2022.
- 김현숙, 「고구려 한강유역 영유지배」, 『백제연구』50, 2009.
- 김호준, 「파주 오두산성에 대한 백제 관미성설 비판」, 『한국성곽학보』19, 한국성곽학회, 2011.
- 나동욱, 「광개토태왕대 고구려 백제간 전쟁지역 고찰」, 『軍史』제77호, 2010.
- 남의현, 「장수왕의 평양성, 그리고 압록수와 압록강의 위치에 대한 시론적 접근」,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인하대고조선연구소 연구총서2, 2017.
-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동북아역사논총』11, 2006.
- 문안식, 「『三國史記』 羅·濟本紀의 靺鞨 史料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13, 1998.
- _____,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서울지역의 동향」, 『서울학연구』, 2010.
- _____, 「백제의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와 기항지」, 『사학연구』, 2015.
- _____, 「백제의 평양성 공격로와 마식령산맥 관방체계 구축」, 『한국고대사탐구』22, 2016.
- 박성봉, 「광개토호태왕기 고구려남진의 성격」, 『한국사연구』27, 한국사연구회, 1972.
- 박영재, 「파주 오두산성 동벽 유구 조사와 성격 고찰」, 『백산학보』80, 2008.
- 박종서, 「고구려 고국원왕 - 광개토태왕대 남진로 검토」, 『사학지』49, 2014.
- _____,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제113호,

- 2023.
- 朴燦圭, 「百濟 熊津初期 北境問題」, 『史學志』 24, 1991.
- 박현숙, 「웅진천도와 웅진성」, 『백제문화』,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1.
- 백종오, 「임진강·한탄강유역 고대 관방체계와 하천로」, 『지방사와 지방문화』25(2), 2022.
- 복기대, 「고구려 평양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고증」,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인하 대고조선연구소 연구총서2, 주류성, 2017.
- 서영교, 「신라의 漢江유역 점령유지와 國原」, 『영남학』제83호, 2022.
- 서영일, 「漢城時代의 百濟 北方交通路」, 『文化史學』21, 2004.
- _____,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38, 2006.
- _____, 「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실과 웅진천도」, 『서울과 역사』72, 2008.
- 성주탁·차용걸, 「百濟儀式考」, 『백제연구』12, 1981.
- 孫德連, 서길수 옮김, 「비사성(卑沙城)」, 『고구려발해 연구』9, 2000.
- 梁起錫, 「熊津時代의 百濟支配層研究」, 『史學志』 14, 1979.
- _____, 「5~6세기 백제의 북계-475~551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문제를 중심으로-」, 『박물관기요』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 _____, 『百濟史資料譯註集-韓國篇 I』,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 _____,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99, 2020.
- 우성민, 「『中國歷史地圖集』에 표기된 高句麗 卑沙城에 대한 檢討」, 『중국사연구』 106, 2017.
- 윤명철, 「廣開土大王의 군사작전에 대하여-수군을 중심으로」, 『광개토대왕과 고구려 남진정책』, 2002.
- _____, 「高句麗의 南進戰略과 海洋活動-동아지중해 중핵조정론을 중심으로-」, 『STRATEGY21』제2권 제2호, 한국해양연구소, 1999.
- _____, 「강화지역의 해양방어체제연구 - 관미성 위치와 관련하여」, 『史學研究』 58.59, 1999.
- 尹善泰, 「馬韓의 辰王과 臣瀆沽國」, 『百濟研究』 34, 2001.
- 윤성호, 「朝鮮城址實測圖를 활용한 삼국시대 성곽 연구」, 『한국사학보』 83, 2021.
- 윤일녕, 「關彌城位置考」, 『북악사론』2, 1990.
- 李慶美, 「鴨綠江~遼河 유역 고구려 성곽과 지방통치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7.
- 李基白,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 9, 1978.
-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의 檢討」, 『韓國史研究』45, 1984.
- _____, 「百濟 熊津期 漢江流域支配 問題와 그에 대한 認識」, 『향토서울』제73호, 2009.

- 이흥두, 「고구려의 남방 진출과 기마전-특히 강화만하구 진출을 중심으로」, 『군사』 85, 2012.
-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18, 2002.
- _____,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재검토」, 『백제문화』 37, 2007.
- 임학성, 「조선 후기 京畿 島嶼지역의 水軍鎭 설치와 주민 생활 양태 - 水軍防禦營이 설치된 永宗島의 戶籍 자료 분석 사례 - 」, 『역사민속학』57, 2019.
-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2021.
- _____,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진출과 남방 접경」, 『한국고대사탐구』제42집, 2022.
-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한국학보』3집, 일지사, 1976.
- _____, 「廣開土王의 征服活動」, 『한국사 시민강좌』3, 일조각, 1988.
- 崔鍾澤, 「黃州出土百濟土器例」, 『韓國上古史學報』4, 1990.
- 許明鋼, 서길수 옮김, 「대련지구(大連地區)에 있는 4개의 고구려 산성에 대한 소고」, 『고구려발해 연구』9, 2000.
- 王雪鵠等, 「1975~2015年大连市海岸线变迁和围填海变化」, 『海洋环境科学』36.1, 2017.

Reconsideration of the location of the northern fortresses during the Hanseong period of Baekje

-Focusing on the location of Gwanmi Fortress-

Nam, Joo-sung

(Daehan Hisstory and Culture Association)

King Jinsa of Baekje established fortresses on the northern border in 386 to respond to Goguryeo's southward advance. They say that, Baekje's northern fortresses started from Palgonseong fortress near Icheon-gun, Gangwon-do along the Masikryeong Mountain Range, passed through Cheongmokryeong pass in the north of Kaesong city, and then reached Yeohyeon pass in the west of Gaeseong city. If Cheongmokryeong pass was set to the north of Gaeseong city and Palgonseong fortress was viewed as the Pyeongsan city area, the west reached Haeju Bay. Also, regarding the location of Gwanmi Fortress, academic circles refer to the mouth of the Yeseonggang River, Ganghwa-do island, Gyo-dong-do island and confluence of the Han River and Imjin River Estuaries (Paju Odusanseong Fortress). However, during the reigns of King Dongseong and King Muryeong, Baekje fought a battle with Goguryeo at Hansanseong fortress, Chiyangseong fortress, and Sugokseong fortress, which are believed to be north of the Han River. During the reign of King Muryeong, build a Ssanghyeonseong(雙峴城) fortress on the north of the Han River. There are records of Baekje's confrontation with Goguryeo in north of the Han River.

Moreover, Bok Gi-dae, Nam Ui-hyeon and others's study shows that the capital of Goguryeo's Pyongyang located in Liaoyang, Liaoning Province, China. In addition, Kim Young-seop estimated that the group that built the tombs near Taedong River was most likely Baekje, and announced research results showing that Baekje's capital Hanseong(漢城) located in the Pyongyang area of North Korea.

If Pyongyang, the capital of Goguryeo, is Liaoyang, Liaoning Province, and Hanseong, the capital of Baekje, is the current Pyeongyang area, the locations of Baekje's Northern fortresses and Guanmi Fortress should also be reexamined. In this study, the northern fortresses of Baekje were established along the Tiansan Mountain Range of the Liaodong Peninsula, and Gwanmi Fortress is assumed to be Daeheuksan mountain Fortress (Bisaseong Fortress of Goguryeo) guarding Dalian Port.

Key Words : Gwanmi Fortress, Odusanseong Fortress, Daeheuksan mountain
Fortress, Hanseong